

보령시의회,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 하자

의원발의 2건 포함 22건 심사·의결, 올해 주요업무계획 청취후 시정 질문도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보령시민을 위한 정책이 잇따라 제안되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극복에 앞장서는 시의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첫 회기인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안건 심사,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에 대한 안건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권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가구가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다.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

상차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동인 부의장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령시종합복지관 운영 ▲보령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부서 신설을 요구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의 ‘근자열원자

래(近者悅 遠者來)’를 역설했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에 우리 보령시도 10년을 시작하는 첫해부터 어려운 난제로 인해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며 “언 땅 밑에서 싹을 틔우는 겨울나무의 상상과 같이 2020년대에는 우리 보령시가 위기를 넘어서서 서해안 중심 거점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